

윤장현 “새 리더그룹 영입해 청년성 회복해야”

이낙연 “당 혁신 왜곡되면 가만있지 않겠다”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서 새정치 지도부에 쓴소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본격적인 혁신작업을 앞둔 지도부에 혁신과 변화를 당부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민선 6기 1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 광역단체장 9명이 참석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재보선에서 당의 정신적 거점인 광주의 민심을 보면서, 우리가 저절하게 섬기는 자세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특히 새로운 리더 그룹들을 영입해 청년성을 회복해야 집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설령 싫은 마음이 들어도 모두가 민주주의 절차와 규칙에 대해 승복하면서 당의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계파갈등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최문순 강원지사는 “우리 당의 문제는 귀족화의 문제다. 현장에서 멀어지면서 중앙 집권화 됐다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당의 위기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이며 뿌리가 깊는데, 혁신이 왜곡되거나 좌절되면 시도지사들도 가만히 앉아있기 어렵다. 문 대표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비장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민선 6기 1년

성과와 향후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시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지난 1월 현대차 그룹과 함께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한전과 함께 에너지 산업,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은 전국 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면서 올해 ‘전국 지자체 일자

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윤 시장은 또 “시민중심 시정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시민배심원제’, ‘정책영향평가제’ 등 다양한 시민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고 ‘청년위원회’, ‘꿈꾸는 테이블’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전국 최초로 유치원, 고등학교 등 도내 학교 급식에 유기농 쌀

을 공급한 사례와 공공의료기관인 강진의료원이 산부인과 개설 등으로 환자 전환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2대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정책을 소개하고 “지난해 2개 시·군, 올해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100원 택시가 놓여준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아 내년에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신기남 의원, 이낙연 전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연합뉴스

“선거구획정안 10월 중순까지 국회 제출”

선관위 “획정위 독립기구 설치는 정치개혁의 출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오는 10월 중순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한 것에 환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한 데 대해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 수정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 대응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개혁 취지가 실현되도록 빈틈없는 실무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공정화,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0월 13일까지 내년 4월 총

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는 11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12월 15일부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게 된다.

선관위는 다음달 중 공직선거법이 공포·시행되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운영 등에 필요한 중앙선관위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며,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선거구획정위 지원조직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다음달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을 선관위에 통보하면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위 위원을 위촉하고 획정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하도록 했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즉시 획정위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안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민 자살예방 파수꾼 뜬다

‘빛고를 생명 지구대’ 출범 시민·공무원 등 300명 구성

광주시민의 자살예방 활동에 앞장설 ‘빛고를생명지구대’가 출범한다.

출범식은 광주광역시건강증진센터(부설 광주자살예방센터)와 5개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공동으로 1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다.

빛고를생명지구대는 시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통장, 복지관, 공무원 등 5개구 총 300여 명으로 구성되며, 자살 위험자가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

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 안전망의 파수꾼 역할을 도맡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하루 평균 40여 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루 1명꼴로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임태백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빛고를 생명지구대 출범을 계기로 지역 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한전, 치매·독거노인 실종 예방 힘 모은다

‘사회안전망 서비스 사업’ 협약 광산구 거주 1000명 시범사업

광주시와 한전이 치매·독거 어르신들의 실종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한국전력공사와 치매·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 협력’ 협약을 하고 실종 예방 등을 담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시범사업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전이 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사업의 하나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총괄하고 사업지역 관리, 주민 협조 체계 조성 등을 맡고, 한전은 사회안전망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및 제공, 양방향 통신의 지능형검침인프라(AMI)망 연계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치매 노인에게 위치서비스가 가능한

팔찌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해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사고 발생 시에도 쉽게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시범적으로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치매·독거 노인 1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전의 원격검침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인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접목해 지역사회 기여와 기술협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곽현미 광주시 전략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신개념의 사회안전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광주시의 사물인터넷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9866명이며 이 중 치매로 등록된 환자는 4914명에 이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美 메릴랜드주지사 교류 협력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지난 28일 저녁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개최된 ‘메릴랜드주 경제사절단 환영 리셉션’에서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교류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2016년 개최되는 정총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고, 래리 호건 주지사와의 개별 면담에서 향후 상호 방문을 통해 양 지역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지자체와 교류, 양국 간 투자 및 교육 확대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26일 방한했다.

호건 주지사는 부인(First Lady)이냐 주 출신 유미 호건(Yumi Hogan)으로, 주지사 취임 후 주 최초로 한국계 지미리(한국명 이형모)를 ‘소수계 행정부 장관’(Governor’s Office of Minority Affairs)으로 임명하는 등 친한(親韓) 행보를 보이는 등 ‘한국 사위’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TV, 인터넷, 집전화, 휴대폰까지 결합으로 커지는 혜택

HD 디지털 방송 광랜인터넷 인터넷 집전화 모바일 알뜰폰

KCTV 광주방송 | 062) 417-8000